

치 사

한 해의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로 되돌아오는 뜻 깊은 절기에 한국불교 교학의 중심 도량인 봉선사가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낙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실은 수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그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불사가 얼마나 많은 현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자리가 결실과 풍요의 진정함을 함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봉선사는 예로부터 교종갑찰이라 하여 면면한 가풍을 이어온 사찰로 대장경 한글화라는 큰 물줄기를 열어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고 친숙한 불교의 방향을 제시해준 모범 도량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의 성취가 보여주듯이 현대의 요구를 여유롭게 읽어가는 것은 각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 사회는 경쟁과 소외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질의 충족은 더 이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려한 자연과 더불어 오랜 시간동안 한국의 정신문화를 꽃피운 사찰에서 많은 이들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회향의 커다란 의미라 할 것입니다.

선조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계승 보전한 수행정신과 전통문화, 자연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로 물질 만능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산사의 문을 활짝 열어, 마음까지 나누는 정신의 삶으로 안내하고 나눔의 정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행복의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봉선사만의 불사가 아니며 종단의 대작이며 불교의 성취입니다. 나

아가 지역사회는 물론 현시대의 사람마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구의 힘있는 한걸음은 한국불교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모습이자, 미래입니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과 함께하고자 하는 제33대 집행부의 원력과 서원의 구체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회향이 이 지역은 물론 종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발원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반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과거와 미래를, 자연과 문화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치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산중의 어른이신 조실 큰스님과 원로의장 스님의 든든한 후원과 격려속에서 진력을 다한 주지스님의 원력과 공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융한 교구화합 속에서 한마음으로 발원한 제25교구 사부대중과 더불어 진솔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문화재청과 지역 관공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템플스테이 전용관 낙성을 깊은 마음으로 거듭 축하합니다.